

진도와의 남다른 인연

진도는내가자신있게제2의고향이라고말할수있
는, 어떤 운명으로 느껴지는 곳이다. 내가 진도와
인연을맺은때는 20여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그러
니까 현대건설 입사 후 현장 기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하
지 3년 후인 1984년 기존 진도대교공사에 대리로 참여하
면서부터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동 등 해외 건설시장에서 특수를
누리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열
이 없을 때이다. 나 또한 현장 기사로서 동분서주 바쁜 나
날을 보내고 있었고 전직원이 국내, 해외가릴 것 없이 말
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 전까지 내게 진도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선 13척을 수장시킨 명량대첩의 전승지인 울돌목에 인접한 섬으
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연고도 없고 생전와 보지도 못한 곳에 내가
부임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연륙교 공사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니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 시절에 육지의 끝인 해남과 진
도를 가로막는 울돌목에 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진도대교
공사에 임하였다. 당시 진도대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장교
였고, 더욱이 유속 13노트의 거센 조류로 인해 당시의 국내 기술력
으로는 해상 구조물 시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너무 힘들었던
공사였다. 그래서였을까. 진도대교 공사가 완료되고 1984년 가을
준공을 마친다는 곧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고 이것이 진도
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04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12월 24일 나는 내 청춘
을 보냈던 진도에 하얀 눈을 맞으며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도 해남
과 진도를 가로막는 울돌목과 싸우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놓이는 쌍둥이 교
량 건설공사에



조학연
제2진도대교현장소장(현대건설)

모두 참여하는 남다른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처음엔 사
회 초년생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덤벼들던 그곳에 지천명
(知天命)의 나이에 한 공사를 책임지는 현장 소장으로서
남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현장에 부임한 나는 ‘이것이 진
도와 나의 인연이며 운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이것이 운명인가! 라고 느낀 순간부터 진도는 내게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나의 고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사에 임하였다.
물론 기술이나 시공 면에서 진도대교 건설 당시보다 많

이 나아졌지만 해양 사고의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아찔한
순간도 겪었지만 또 다른 나의 고향에 대한 무감으로 이 모든 것
을 받아들이고 결과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는 진척되고 있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의 회사인 생 28년을 돌아보면 현대건설에 입사했을 때 그 설
렘과 긍지를 이곳 진도와의 인연으로 연결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교
량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열중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설 인생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 면 그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지역 및 국토의 균형 발전에 미력을
다하고 마침표를 찍고 싶다. 오
늘도 울돌목에서 맞는
바람이 포근하게 느
껴지는 것은 왜
일까?

